

너를 사랑

MARSA KOREA | 2020 06
MAGAZINE 제 16호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한국해양구조협회는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세상을 바꾸는 용기 부패·공익신고

1398 110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 부패행위란 무엇일까요?



- ✓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외·유인하는 행위

○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 인터넷
 - 해양경찰청 청렴고충신문고
 - 청렴포털(www.claen.go.kr)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 방문·우편
 - 해양경찰관서 종합민원실(전국)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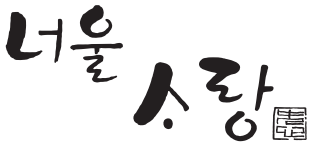
한국해양구조협회

MARSА KOREA MAGAZINE

2020 06
제 16호



발행처 한국해양구조협회
발행인 김성태
발행일 2020년 06월 26일
주소 48562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356번길 93 (용당동)
TEL. 051)714-3695
FAX. 051)714-3095
기획·편집 김다현
디자인·인쇄 세종출판사
TEL. 051)463-5898



표지 제자 「너를 사랑」
바람에 일어나는 물결을 의미하는 '너울'
과 봉사정신의 밑바탕인 '사랑'의 합성어
로 해양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국해양구조
협회의 숭고한 봉사정신이 담겨져 있다.

CONTENTS

Special Theme	
04	칼럼 ‘안전’ 시스템을 넘어 캠페인을 통한 생활화로 _ 이권희 한국해기사협회장(한국해양구조협회 이사)
MARSА News	
06	본부 뉴스
08	1) 총재 이·취임식
09	2) 제18차 이사회
10	3) 해양경찰과 「청령해 출항식」
11	4) 민간해양구조대원 복지예산 6억2천2백만원 최초 확보
12	5) 협회-해양경찰 지휘부 간담회
13	6)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지부활성화 간담회
14	7)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와 함께 챔버교육 시범사업 추진
15	8) 해양환경공단, 「2020년 해양환경직무교육」 실시
16	지부·지역대 뉴스
17	1) 장흥구조대, 제2·3대 대장 이·취임식
18	2) 독도119 소방헬기추락사고 수색구조에 참여한 협회 대원들 울릉군청 군수 표창 수상
19	3) 경북특수구조대 훈련교육장 개소식
20	4) 마산구조대, 마산파출소와 ‘2020년 하계성수기 대비 간담회’
21	5) 충청남부지부 홍원구난대, 봉사대 사무실 개소식
22	6) 충청남부지부 보령봉사대, 연탄나눔행사
23	7) 구조대 훈련소식
24	8) 구조대 구조·구난 소식
MARSА Story	
26	지부이야기 ‘시’ 이자 ‘음악’ 이자 ‘그림’ 같은 곳 통영의 바다를 지키는 경남서부지부 바람과 파도를 가르는 드론 해양구조의 선구자 다시 기지개를 켜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나선 전국 지부
30	안전을 부탁해
34	환경을 부탁해
MARSА Info	
38	국내뉴스
39	1) 해수욕장 붐빌 땀 빨간불! 미리 확인하세요
40	2) 올 여름철, 바다에서의 안전과 방역에 총력 다한다
41	3) 올해 첫 보름달물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령
42	4) 해양경찰청, 고래류 보호를 위한 현장 업무 개선 방안 마련
	5) 선박검사 종이증서, 이젠 안녕~!
MARSА Notice	
43	협회교육안내
44	1) 2020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교육
45	2) 2020년 『인명구조요원』 교육
46	3) 2020년 『재난안전지도사』, 『해양안전지도사』 교육
	협회후원안내

칼럼

‘안전’ 시스템을 넘어 캠페인을 통한 생활화로

- 안전 시스템, TOP의 실행의지와 현장의 생략 없는 이행이 조화를 이루어야 -

한국해기사협회장 이 권 희
(한국해양구조협회 이사)



사람이 물고기가 되지 않는 한, 바다는 인간에게 늘 위험한 곳이다. 그러나, 바다가 사람에게 주는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바다와 함께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류는 위험한 바다로 나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사람은 바다에서 식량원을 얻고 바닷길을 물류에 이용해 왔으며,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레저활동을 통해 바다를 즐기고 있다. 위험하지만 바다를 멀리하고는 살아갈 수 없으므로, 바다가 주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바다를 어떻게 안전하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다. 바다에서 인명 안전을 위한 최초의 국제적 기준은 1912년에 있었던 비극적인 타이타닉호 침몰사건을 계기로 1914년에 탄생하였다. 처음에는 HARDWARE를 규제하였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1994년에는 SOFTWARE인 안전관리 시스템(ISM)까지 협약에 포함시켰다. 근래에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의 노동시간과 강도까지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이 협약의 상당 부분이 연안취항 선박에도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대형사고가 있을 때마다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고, 선박운항 주체의 단계별로 P(계획)-D(시행)-C(확인)-F(피드백)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까지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손실과 환경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훌륭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원인의 80% 이상이 HUMAN ERROR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것은 선박의 운항과 시스템의 운영도 종국에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HUMAN ERROR의 대부분이 안전 시스템마다 요구하는 안전기준과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다. 대부분의 사고는 제대로 안전기준이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고, 결국 본선 선박운항자의 잘못으로만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과연 그것뿐일까? 새로운 통제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여 육상 선박관리담당자와 본선 운항자만 압박하면 될 것인가? 도대체 왜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지 그 근본적 원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즉, 효과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시스템뿐 아니라 시스템을 넘어 육상 경영진의 안전에 대한 철학과 최일선에 있는 본선 운항자의 '생략' 없는 이행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선, 육상 MANAGEMENT 측면을 보자!

안전 시스템을 설정할 때에는 우선 국제법 또는 국내 안전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투입 비용과 사고로 인한 유무형 손실을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을 문서화함을 넘어서 전 조직의 실행을 위해서는 특히 TOP MANAGEMENT의 실행의지와 안전에 대한 철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안전기준의 이행에 대한 TOP MANAGEMENT의 실행의지를 대내외로 밝히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물론 정해진 안전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고, 하위 종사자가 이에 대해 의심하지 않게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한다.

둘째, 특히 인명안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한다.

셋째, 사고로 인한 손실을 직접 손실만으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실제 인명손실과 오염이 연관된 사고는 직접적인 재무적 손실뿐 아니라 조직의 이미지에도 심대한 손실을 가져와 전략적인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본선 운항자의 측면을 보자!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세부적인 수칙을 만든다하더라도 현장 종사자의 순간순간 행위와 수많은 잠재하자를 모두 식별해서 시스템으로 통제하기는 불가능하다. 인간인 이상 실수를 하게 되고, 번거로운 안전절차를 편의적으로 '생략'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된다. 앞에서 말한 TOP MANAGEMENT의 안전 철학과 솔선수범하는 조직 내 안전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것을 넘어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의식을 항상 날카롭게 하고 세부적 안전 절차를 '지적 확인'하며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즉, 현장에서는 시스템의 열개를 메워주는 실천적 '지적 확인'을 체득시켜 '생략' 행위를 없애고 생활화하는 현장 캠페인이 필요하다.

최근에도 대형 해양사고로 정부, 고용주, 피고용자 간에 사회적 불신이 높아지고, 바다와 선박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선박 운항자가 되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바다는 본질적으로 위험한 곳이지만 사고는 '바다'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훌륭한 해양안전 시스템! 그리고 이 시스템을 넘어 TOP MANAGEMENT의 안전에 대한 확고부동한 철학과 본선 운항자의 '생략 행위' 없는 이행이 안전한 바다를 만들 수 있다.

총재 이·취임식

지난 7월 3일, 우리협회는 영도 목장원에서 총재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금번 이·취임식은 지난 2월 27일 개최 예정이었던 대의원 총회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현지점에서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태 신임총재와 신정택 이임총재, 이사장, 부총재, 이사, 각 지부 협회장 및 대원들이 참석하였고 외부에서는 본청 구조안전국장, 구조협력계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부산해양경찰서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협회 창립부터 초대총재로 취임하여 4대까지 역임한 신정택 총재는 창립 초기 2천명의 회원으로 시작했던 협회가 현재 2만여 명 돌파를 목전에 두기까지 다양한 발자취를 남기며 협회발전에 기여 해왔다. 양분되어 있던 민간해양구조대와의 통합을 이루고 협회의 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해양경찰청 등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린 결과 수상구조법 개정 이어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복지예산이 최초 확보되는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었다.

총재직 이임과 함께 협회의 명예총재로 추대된 신정택 총재는 “정들었던 7년여의 생활을 뒤로하고 또 다른 봉사의 길을 가기 위해 총재직을 내려놓으려 한다. 재임기간동안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 단체기념촬영

협회 모든 구성원들과 해양경찰 여러분에게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비록 총재직을 내려놓지만 제 마음은 언제 어디서든 한국해양구조협회와 함께 할 것이다.”고 소감을 전하였다.

김성태 총재는 취임사를 통해 “50여 년간 해양인으로 살아오면서 체득한 지식과 지난 7년 여 간 수석부총재로서의 경험을 살려 우리협회의 발전과 해양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며 “신정택 총재님께서 이루신 큰 업적의 바통을 이어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담대한 마음으로 제 소임을 다하여 보다 안전하게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김성태 총재는 1948년생으로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해양대학교 명예경영학박사,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박사를 수료하였다. 현재 (주)코르



웰, 동일조선(주) 대표이사로 지난 7년간 우리협회 수석부총재로 역임, 협회와 동거동락하며 협회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1년간 해양봉사활동에 모범이 되어 활동에 앞장서준 대원들에게 표창 및 공로패 수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포상수여자 명단

| 감사장(해양경찰청장)

김유근(경남서부지부), 명유천(영등포구조대), 손희만(경남동부특수구조대), 신철원(전북북부지부), 안실광(울진구조대)

| 단체표창(총재)

전남동부지부(최우수 지부), 부산해양특수구조대(최우수 지역대), 경북특수구조대(우수 지역대)

| 개인표창(총재)

김경미(경주구조대), 양희원(마산구조대), 이호상(장원구조대), 임성덕(전남동부특수구조대), 신광섭(장흥구조대), 김동배(홍성구조대), 최태선(경기충남북부지부), 박성원(김포구난대), 강인철(성동구조대)

| 공로패(총재)

김성대(강원남부지부 협회장), 장종철(경남서부지부 협회장), 김성필(장흥구조대장), 하재홍(진주사천구조대), 김복수(경북특수구조대)



▲ 협회기를 흔들고 있는 김성태 총재



▲ 이명준 구조안전국장과 신정택 총재가 신임 김성태 총재에게 총재견장을 달아주고 있다.



▲ 김성태 총재로부터 명예총재 위촉패를 수여받은 신정택 총재



▲ 개인표창



▲ 단체표창



▲ 공로패



▲ 지역대장 임명장



▲ 구지영 남해청장으로 부터 감사패를 받는 신정택 총재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제18차 이사회

지난 7월 3일, 우리협회는 제18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 단체기념촬영

이사회는 재적 45명중 35명(참석 12명, 위임 23명)이 참석하였으며, 주요안건으로는 △지역대 설립의 건 △규정 일부 개정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하였다.

지역대 설립의 건의 경우 부산지부에서 구조대(설립4), 구난대(재편1, 설립2), 봉사대(설립1) 등 협회와 민간해양구조대의 통합에 따라 지역대를 재편 및 신규 설립하였다.

규정 일부 개정의 건의 경우 우선 인사규정과 관련하여 현행은 일반직 직원 채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민간경상보조사업 및 용역 등의 수행을 위한 계약직 직원 채용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어 민간자격교육 관리 규정과 관련하여 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 '생존수영 지도사' 양성 과정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민간자격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협회)의 규정에 '생존수영지도사'에 대한 용어 및 과정에 대한 규정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본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민간경상보조사업과 관련된 피복지원 및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금년도에 적용되는 민간경상보조사업 대상은 2019년 말 현재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된 자로 제한되기 때문에 협회 대원 중 해양경찰서 미등록자는 금년 말까지 등록을 필하여 계속되는 2021년도 사업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민홍기 이사장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은 민간경상보조사업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미비하다는 것을 안다"며 "오늘 이사회를 통해 주셨던 고견들을 모아 내년도 사업 시에는 조금이라도 수혜자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협회 회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하였다.



해양경찰과 「청렴해 출항식」



▲ ((왼쪽부터))이형철 회장, 김성호 회장, 정태길 위원장, 임병규 이사장, 김홍희 청장, 정태순 회장, 김성태 총재, 박창호 회장, 강무현 총재

지난 7월 7일, 해양경찰청은 우리협회 및 관련 유관단체와 함께 ‘청렴한 해양문화로 안전한 바다를 만든다’를 주제로 「청렴해 출항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태 총재를 비롯하여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차장, 국장단, 정태순 한국선주협회 회장,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임병규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이형철 한국선급 회장, 박창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회장,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강무현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총재 등 해양경찰과 바다를 문화의 공간으로, 삶의 터전이자, 사업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8개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해양경찰과 8개 민간단체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반

부패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바다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민간단체와 상호 감시 체제를 마련해 부패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안전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라고 전하였다.

한편, 우리협회는 지난 5월 25일, 협회와 해경청 지휘부 간담회에서 「청렴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민간해양구조대원 복지 예산 6억2천2백만원 최초 확보

지난 2월 26일, 해양경찰청은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및 피복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확보하였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우리협회와 통합한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협회는 해양 봉사자들의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당국을 통한 다년간의 노력 끝에 해양경찰청이 민간해양구조대 복지예산을 확보하는데 일조하였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상기 복지예산은 공모절차를 거쳐 2020년 3월 30일 우리협회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현재 우리협회 주관하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바다에서의 구조활동은 그 어느 활동보다 위험수위가 높고 나아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타 공공기관의 민간단체인 의용소방대(소방청), 아동안전지킴이(경찰청)와 비교해 볼 때 단체상해보험 등의 기본적인 복지혜택조차 받지 못했으며 피복이나 장비 또한 봉사자들이 직접 사비로 구입하는 실정이었다.

금번 예산 확보를 통해 민간해양구조대원 피복지급(2억1천만원)과 단체상해보험 가입(4억1천2백

만원)등이 지원되어 구조활동 시 대원들의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책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년도에 적용되는 민간경상보조사업 대상이 2019년 말 현재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된 자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2021년도 사업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회 대원 중 해양경찰서 미등록자는 금년도 말까지 등록을 필할 것을 독려하고자 한다.

현재 좀 더 정확한 수요조사를 위해 전국 민간해양구조대 피복 체촌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단체상해보험 가입 및 피복지급 등의 복지혜택이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협회-해양경찰 지휘부 간담회

협회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지휘부 간담회가 지난 5월 25일, 해양경찰청에서 개최되었다.



◀ 기념촬영 (왼쪽 네 번째부터 이명준 국장, 민흥기 이사장, 신정택 명예총재, 김홍희 청장, 김성태 총재, 김병로 차장)

이날 간담회에는 본회에서 김성태 총재를 비롯해 신정택 명예총재, 민흥기 이사장, 본부장 2명이 참석하였으며 해경에서는 김홍희 청장을 비롯한 차장, 기획조정관, 구조안전·오염방제 국장, 수색구조·기동방제 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협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심도깊은 논의가 이어졌으며 국유재산 무상사용을 위한 수상구조법 개정, 수상구조사 교육과 관련된 애로사항 등을 건

의하고 해경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김홍희 청장은 협회설립부터 초대총재로 선임되어 지금까지 협회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공헌해온 신정택 명예총재에게 청장 공로패를 전달하였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통해 청렴 문화를 알리고 상호 운영중인 홍보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관련 문화정책 등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 김홍희 청장이 신정택 명예총재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다.



▲ 김성태 총재와 김홍희 청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지부 활성화 간담회

우리협회는 지난 5월 15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함께 지부활성화를 통한 민·관 해양구조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기념촬영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태 총재, 민홍기 이사장을 비롯하여 남해안을 담당하는 우리협회 울산, 부산, 경남동부, 경남서부 협회장 및 구조대장 등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남해청에서는 구자영 청장, 안전총괄부장, 경비과장 등 총 30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구조협회 지부 활성화와 민간구조대원의 현실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와 수난구조 활동 중 사고 시 보상을 위한 복지제도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2020년 민·관 합동 훈련 시 해역별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훈련으로 공조체계를 강화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어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양안전을 위해 헌신해온 협회 임직원 및 구조대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되었다.

※**감사장 수상자** : 본회 강웅 경영지원본부장, 울산지부 최영목 협회장, 부산지부 최상문 부협회장, 경남동부지부 전승윤 특수구조대장, 경남서부지부 장명옥 구급봉사대장



▲ 구자영 청장이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





(주)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와 함께 챔버교육 시범사업 추진

지난 6월 22일, 본회 사무실에서는 챔버전문기업 (주)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와 함께 민간잠수사들의 챔버교육 필요성 및 시범사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IBEX의 산업용 고압산소챔버

본회에서 민홍기 이사장을 비롯하여 본부장 2명이 참석하였으며 (주)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에서는 임승복 본부장, 전현성 이사가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는 해양구조·구난 전문단체로서 협회가 해양사고 발생 시 민간잠수사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감압병 증상이 있는 잠수사들에 대한 응급처치 등 대처 방법으로 챔버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작동원리와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추진되었다.

(주)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는 산소를 이용한 의료 기술 개발의 리더로서 고압의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

를 바탕으로 민·관·군 의료분야 및 일반 가정에서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고압산소치료요법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또한 고압산소챔버 연구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제조사로 다양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및 과학기술부 장관표창과 2019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금번 회의를 시작으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장소섭외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잠수의 원리부터 챔버의 작동 및 운용 등 실질적으로 잠수사들이 숙지하고 훈련할 수 있는 교육기회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양환경공단, 「2020년 해양환경직무교육」실시



▲ 생존수영 실습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해양환경공단 직원들

지난 6월 16일, 부산 송도해양레포츠센터에서 우리협회는 해양환경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0년 해양환경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대상자는 해양환경공단의 해양생태팀, 해양수질팀 등 실제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해양연구 및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는 직원들의 해양안전에 대한 전문교육을 우리협회에 의뢰하였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교육은 3시간 동안 해상안전교육 및 장비구조법에 대한 이론교육을 실시하였고

오후 1시부터 시작된 교육은 송도해양레포츠센터 수영장에서 해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수영 및 구조방법 등 4시간가량 실습하였다.

해양환경공단의 교육담당자는 “직원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고, 해양사고가 났을 때 실제 바다에서 대처해야 되는 방법들을 실습을 통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며 “내년도 직무교육도 의뢰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장흥구조대 제2·3대 대장이 · 취임식

지난 6월 9일, 우리협회 전남남부지부 장흥구조대가 제2·3대 대장이 ·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완도해양경찰서 박제수 서장을 비롯하여 회진파출소 손철중 소장, 광태수 도의원, 이성배 장흥수협조합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장흥구조대원 등을 포함하여 총 55명의 대원들과 외부인들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이임 김성필 장흥구조대장은 역임기간 동안 긴급 출동 차량, 지자체 장비지원 등 최적의 봉사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매일 팀을 이뤄 장흥군 내 항구를 순찰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다방면에 걸쳐 리더십을 발휘하며 장흥구조대를 이끌어 왔다.



▲ 이임 김성필 대장이 신임 박종문 대장에게 견장을 달아주고 있다.

신임 박종문 대장은 협회 창립전부터 10년 넘게 장흥구조대에서 활동하며 장흥군 최고의 봉사단체로 입지를 굳힐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이다. 대장 취임 전 고문을 역임하면서 대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오며 봉사의 최일선에서 활동해 왔다.

박종문 대장은 취임사를 통해 “모든 대원들의 봉사에 대한 열정 덕분에 ‘바다의인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왔다.”며 “앞으로 더욱 단단한 구조대를 만들어 봉사단체로서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대원분들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박종문 대장이 구조대 기를 흔들고 있다.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받은 김성필 대장

독도119 소방헬기추락사고 수색구조에 참여한 협회 대원들 울릉군청 군수 표창 수상



◀ (왼쪽부터)
손병욱 대원, 김금철 대원,
김병수 울릉군청 군수,
김복수 고문, 정재완 대장

지난 6월 30일, 포항해양경찰서 중회의실에서 울릉군청 군수 표창장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금번 수여식은 2019년 10월 31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선원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던 119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하였던 민간잠수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

사고헬기에는 소방대원과 부상자 등 7명이 탑승하였으나 4명이 숨지고 3명의 실종자를 남겨둔 채 지난 12월 8일 수색작업은 종료되었다. 실종자 수색작업은 총 39일이 걸렸으며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서 민간잠수사를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협회 대원들이 직접 참여한 바 있다.

11월 14일부터 11일 동안 계속된 민간잠수사 수색은 경북지부 김복수 고문, 정재완 포항구조대장, 김금철 포항구조대원, 손병욱 경북특수구조대원, 김영규 경북특수구조대원, 경기충남북부지부 한상현 사무국장, 전북북부지부 신철원 대장 등 산업잠수사 자격증은 물론 심해 잠수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들만 투입되었다.

잠수사들의 목숨을 건 수색작업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감사함을 전달하기 위해 울릉군청 김병수 군수가 직접 대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금번 수여식에는 4명의 대원들이 대표로 참석하였고 18명 모두에게 표창이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특수구조대 훈련교육장 개소식



◀ 경북특수구조대 훈련교육장 개소 테이프 커팅

지난 6월 20일, 우리협회 경북특수구조대는 포항 죽천 간이해수욕장에 위치한 교육훈련장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지부 김태곤 협회장을 비롯하여 이영호 포항해양경찰서장 그리고 황승욱 경북특수구조대장, 한명효 울진구조대장, 정재완 포항구조대장 등 총 50여명의 대원들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컨테이너 박스 3개의 동을 개조한 교육훈련장은 빔프로젝터, 스크린,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이 비치되어 대원들의 회의 및 이론교육 장소로 유용하게 사용될 예정이며 장비보관 창고로 사용되는 2개의 동은 각 대원들의 잠수장비 및 응급구조박스 등을 구비하여 출동 및 훈련 시 언제든지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북특수구조대는 금번 교육훈련장 개소를 시작으로 대원들의 사기증진뿐만 아니라 꾸준한 모의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산구조대, 마산파출소와 '2020년 하계성수기 대비 간담회'



▲ 단체기념촬영

지난 6월 22일, 우리협회 마산구조대는 창원해양경찰서 마산파출소와 함께 '2020년 하계 성수기 대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진 마산구조대장을 비롯한 대원들과 마산파출소 김상직 소장, 한정우 팀장 등이 참석하였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매년 문제가 되어 왔던 방파제 취객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과 피서객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사전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다.

마산구조대는 마산파출소와 함께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2개월간 마산지역의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계순찰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충청남부지부 흥원구난대, 봉사대 사무실 개소식

지난 4월 29일, 우리협회 충청남부지부는 흥원구난대·봉사대 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서완봉 충청남부지부 협회장을 비롯하여 남기훈 흥원구난대장, 김세옥 흥원봉사대장 및 각 대원들이 참석하였고 성대훈 보령해양경찰서장, 흥원파출소장, 서부수협조합장 등 20여명의 내빈과 6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흥원구난대·봉사대 사무실은 구 해경 남촌출장소였던 서천군 서면 고양남촌길에 위치해 있으며 금번 개소식을 통해서 대원들의 자긍심 고취 뿐만아니라 구조활동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인 해양사고 대처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완봉 충청남부지부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흥원구난대·봉사대 사무실 개소식은 회원들의 화합을 다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며 “지역과 지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봉사단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흥원구난대·봉사대 사무실 앞에서 기념촬영



▲ 서완봉 협회장이 남기훈 구난대장에게 격려금을 전달



▲ 현판식

충청남부지부 보령봉사대, 연탄 나눔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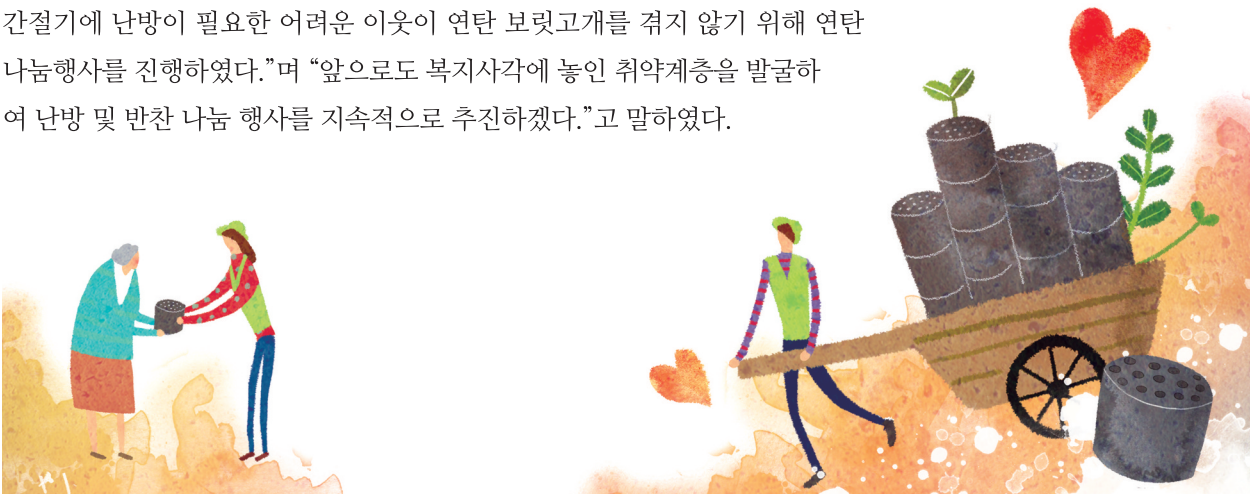


단체기념촬영

충청남부지부 보령봉사대는 지난 4월 29일 관내 생활이 어려운 6가구에 연탄 2,700장을 배달하는 연탄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보령봉사대에서 동절기에 전달한 연탄이 소진되어 난방이 필요한 취약계층 6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보령 지역 기업인 해성(대표 최정숙)의 후원으로 연탄 2,700장을 구입해 관내 1가구당 각각 450장을 30여명의 보령봉사대원과 보령 돌봄이 봉사자들이 함께 전달하였다.

김미경 보령봉사대장은 “연탄나눔행사가 동절기에만 그쳐 기온변화로 일교차가 큰 간절기에 난방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이 연탄 보릿고개를 겪지 않기 위해 연탄 나눔행사를 진행하였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난방 및 반찬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였다.





구조대 훈련소식

| 마산구조대, 창원해양경찰서와 실종자 수색 훈련 실시

지난 6월 19일, 우리협회 마산구조대는 창원해양경찰서의 주관으로 마창대교 밑에서 해피크루저 해난사고 대비 실종자 수색 훈련을 진행하였다.



▲ 동원된 마산구조대 선박에서 지켜본 훈련 현장

이날 훈련에는 이용진 마산구조대장을 비롯한 7명의 대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창원해양경찰, 119 마산 소방대, 진해해군 등 총 2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훈련으로 진행되었다.

금번 훈련은 사전 시나리오 없이 실제 상황을 가정한 긴급훈련으로 익수자들만 사전합의하에 전문 다이버들로 구성된 뒤 입수 지점은 서로 공유하지 않고 실제 수색작업을 방불케 하는 훈련으로 진행하였다.

| 전북남부지부, 해양사고 대응 민·관 합동 수중수색 훈련

지난 6월 15일, 우리협회 전북남부지부는 부안군 격포항 인근 해상과 변산 인공 암벽훈련장에서 부안해양경찰서와 함께 민·관 합동 수중수색 훈련을 실시하였다.

금번 훈련은 유관기관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구조기법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해 우리협회 전북남부지부 및 부안해양경찰서 구조대원 20여명이 참가하였다.

훈련은 해양경찰 구조대와 전북남부지부 대원이 2인 1조를 구성하여 팀워크 향상, 수중 탐색방법 및 로프 구조 숙달, 해역특성상 수중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야를 차단한 상태에서 수색구조 훈련을 진행하는 등 실제 사고를 가정하여 진행되었다.



▲ 훈련준비 중인 전북남부지부 대원 및 부안해양경찰

| 거제구조대, 통영해양경찰서 장승포 파출소와 민·관 합동 수중수색 구조훈련

우리협회 거제구조대는 지난 5월 31일, 통영해양경찰서 장승포파출소와 거제해녀협동조합과 함께 구조라해수욕장 인근 앞바다에서 민·관 합동구조 훈련을 실시하였다.

관내 다중이용선박의 이용객 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선박 및 인명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져 침수, 전복, 익수 등 해양사고의 빠른 초동조치를 위한 훈련으로 민·관 구조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구조기법을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다.

이날 물속에서 잠수 훈련을 진행한 거제구조대 조기암 대장은 “해양경찰 및 유관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훈련을 통한 개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 통영해양경찰과 거제구조대, 거제해녀협동조합과 함께 기념촬영

| 충청북부지부, 태안해양경찰서와 민·관 합동 훈련

지난 5월 21일, 우리협회 충청북부지부는 태안해양경찰구조대와 함께 신진항 전용부두 일원에서 합동 수색구조 잠수훈련을 진행하였다.



▲ 잠수훈련을 진행중인 충청북부지부 대원들과 태안해경

이날 훈련에는 홍재표 충청북부지부 부협회장, 신기철 북부구조대장, 가진현 중부구조대장, 정정연 남부구조대장 및 대원 등 12명 참석하였고 태안해경에서 25명의 해양경찰이 참석하였다.

이날 훈련에서는 태안해경 관할 해안지역의 지형특성에 따른 현장대응기법과 새로운 수색구조 기법들을 상호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나 18미터 이상의 잠수를 시작



으로 원형탐색, 수영자 인도 탐색 등 실전과 같은 수중수색 구조훈련을 진행하였고 주의가 요구되는 시신 인양절차와 드론 활용 수색기법 등에 중점을 두고 합동 훈련을 진행하였다.

홍재표 충청북부지부 부협회장은 “수중수색이 가능한 전문 대원들을 주축으로 태안해경서와 협력체계를 굳건히 하여 사고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훈련의 기회를 가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경기충남북부지부, 평택해경과 인명구조 태세 합동점검

지난 5월 20일, 우리협회 경기충남북부지부는 경기 화성시 전곡항 입구 해상에서 평택해양경찰과 함께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하였다.



◀ 익수자 구조훈련을 하고 있는 경기충남북부지부 대원들과 평택해경

이날 훈련에는 평택해경 교육훈련팀, 대부파출소 구조정, 해양경찰 구조대 구조정, 경기충남북부지부 구조선 등이 동원되었으며 총 20여명의 경기충남북부지부 대원과 해경이 참가하였다.

이날 훈련은 승객이 탄 낚시배가 좌초된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해상에 표류하고 있는 익수자를 구조하고 좌초된 낚시배로 스며드는 바닷물을 신속하게 막아 대형 해난사고를 방지하는 훈련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훈련에 참석한 배금란 경기충남북부지부 협회장은 “훈련을 통해 기량을 발휘하는 대원들을 보면서 자랑스러우면서도 막중한 책임감도 함께 느꼈다.”며 “안전한 바다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할 예정이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구조대 구조 · 구난 소식

| 마산구조대, 마산 합포구 어시장 인근 바닷가 실종자 수색작업

지난 6월 14일 오후 7시 40분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남성동 소재 어시장 주변 바닷가에서 40대 후반 남성이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창원해양경찰서 마산파출소에서 마산구조대 이용진 대장에게 구조요청이 들어와 이용진 대장을 비롯한 4명의 대원이 투입되었다.

실종 남성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일행의 장난으로 바닷속에 추락한 후 나오질 않자 일행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고현장

신고 전화 접수부터 실종자를 찾은 시간까지는 25분가량으로 빠르게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 장흥구조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선박 예인

지난 6월 3일 장흥구조대는 오전 11시경, 노력대교 근처에서 어선 '정남호'가 엔진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어선을 견인 중이 장흥구조대

사고 발생 당일 수중정화 활동 중이었던 장흥구조대원들 중 3명의 대원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무사히 견인조치를 하였다.

앞서 5월 16일, 녹동 앞바다에서 어선 '삭금1호' 역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장흥구조대원이 예인한 바 있다.

금년들어 장흥구조대는 5건 이상의 선박사고 예인작업을 시행하였다.



| 전북북부지부, 바다 추락 굴착기 인양 및 실종자 수색작업

지난 4월 6일 오후 5시 20분경, 군산시 새만금 신항만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추락사고로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추락한 굴착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 공사현장에서 골재 하역작업을 하던 굴삭기는 당초 실려있던 선박(724t)에서 다른 선박(2,200t)으로 옮겨지던 중 바다에 빠졌고 운전자도 함께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후 군산해양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아 즉시 출동하였으며 5명의 잠수대원과 어선 3척, 드론 5대를 동원하여 5일간 75명의 전북북부지부 대원들이 수색작업에 투입되었다.

군산해양경찰서와 전북북부지부 대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지난 5월 2일 오후 1시 7분경, 새만금방조제 신시도 배수갑문 인근에서 낚시객에 의해 발견되어 시신을 수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남서부지부, 신암군 암태도 오도리 선착장 해상추락 차량 수중수색

지난 4월 4일, 신암군 암태도 오도선착장에서 소나타 차량(탑승자 2명)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 당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해양경찰서에서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자와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사고 발생 이틀 후인 4월 6일 우리 협회 전남서부지부로 수중수색작업 협조를 요청해왔다.

이날 수색작업에는 장재구 전남서부지부 협회장을 비롯한 6명의 대원들이 참여하였고 2차 수중수색 작업 중 전남서부지부 대원이 실종자를 발견하여 차량과 실종자들을 인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 수색구조작업을 위해 잠수 준비중인 전남서부지부 대원

이 사고를 계기로 전남서부지부는 서해청 소속 구조대원들과 합동으로 다양한 모의 사고 환경을 조성한 후 몇 차례에 걸쳐 수중수색구조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이야기 _경남서부지부

'시' 이자 '음악' 이자 '그림' 같은 곳 통영의 바다를 지키는 경남서부지부

통영은 시인 유치환, 김춘수, 소설가 박경리, 김용익, 음악가 윤이상, 화가 김형로 등 이름난 문화예술인을 많이 배출한 그야말로 예향이다. 아름다운 다도해를 품고 있는 통영 바다는 그 자체가 바로 그들의 예술성을 키운 자양분이기도 하다.

통영의 바다는 수심이 도서주변은 10~20m로 얇고 외해로 나갈수록 깊어지나 50m를 크게 넘지 않아 수산물의 서식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어류양식도 번성하여 통영은 한국 양식어업의 본고장이라는 부동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오래전부터 전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낚시터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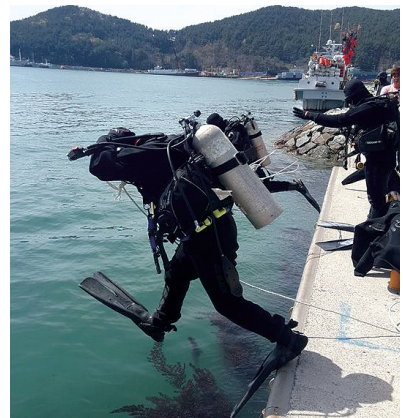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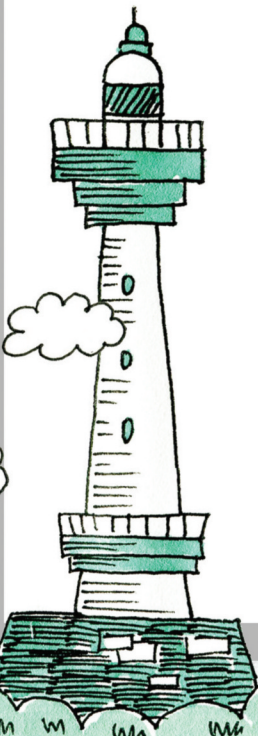
이처럼 아름다운 풍광과 풍요로운 자원을 즐길 수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깃들어 있기에 가능한 결과이다. 오늘도 통영지역의 대표 봉사단체인 우리협회 경남서부지부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기획하며 통영의 바다를 한층 더 빛나게 하고 있다.

해양에서의 봉사활동을 넘어 지역주민들을 위한 아름다운 선행까지 펼치고 있는 경남서부지부를 통해 우리는 봉사의 의미를 다시금 짚어본다.

해상동굴에 고립된 дай버 구출에 투입된 경남서부지부

지난 6월 6일, 통영의 해상동굴에 고립된 다이버 2명을 구조하다 파도에 휩쓸려 순직한 정호중 경장의 소식이 연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사고 당일 오후 5시 40분경 우리협회 경남서부지부 역시 통영해경서 상황실의 연락을 받고 김태정 협회장을 비롯한 6명의 대원들이 해경경비정을 함께 탑승한 후 사고 발생 지점인 흥도로 출발하였다.

고립된 다이버들을 구조하기 위해 투입되었던 해경특수구조대원 3명마저 동굴에 함께 고립되는 최악의



▲ 해상동굴 다이버 구조작업 현장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파도가 높고 만조 상황이라 구조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의 구조작업은 불가한 상황이 었다. 정오를 지나 새벽 3시경 조류상황을 확인 후 구조활동을 재개 하였다. 이후 상황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고립된 다이버들은 구 출되었지만 한 명의 송고한 희생과 함께 사고는 마무리 되었다.

전문 잠수요원들이 특별히 많이 소속되어 있는 경남서부지부는 거제 지심 도 어선침몰 실종자 수색작업, 통영 해란마을 투신자 수색작업, 거제 홍포항 실 종자 수색작업 등 굵직한 해양사고 수습현장에는 어김없이 투입되고 있다. 확충되고 있는 구조대원의 인원만큼 점점 투입되는 횟수도 늘어나면서 구조대원들의 개인역량 강 화 훈련에도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



인재영입을 통한 조직확장

2014년 경남서부지부 설립 이후부터 체계적인 조직 확립을 위해 대원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는 경남서부특수구조대 150명, 구급구난대 450명, 구급봉사대 50명, 진주사천구조대 40명, 거 제구조대 40명, 통영구조대 50명으로 800여명의 대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는 구급봉사대를 발대하여 봉사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경남서부지부의 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경남서부지부는 각종 SNS 채널과 신문 매 체를 통해 활약상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봉 사를 원하는 인재를 영입하고자 홍보에 나 서고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봉사에 대한 열 정을 가졌다면 누구나 입회가 가능하다. 신 입대원이 영입될 때마다 워크숍을 개최하 여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스킨스쿠버 및 응급처치 교육을 무상으로 진행하고 대 원들의 사기증진을 위한 각종 이벤트를 진 행한다.



▲ 신입대원 워크숍

특히 다년간의 잠수경력을 보유하며 최경에 대원들로 구성되어있는 경남서부특수구조대는 현재 150명의 인원을 금년내에 200여명의 전문 대원으로 충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해상에서의 구조작업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면서 명실 상부 해양에서의 대표 봉사단체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해양에서의 봉사를 넘어서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해온 해양환경정화 릴레이 캠페인은 쓰레기 수거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기업/단체들과 협업하여 매회 10만원의 예코적립금을 모아 1년에 150만 원을 통영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탁하고 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일손돕기, 미혼모 시설 생필품 지원 등 700여 만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통영시에 전달하며 봉사의 의미를 더한다.

매년 여름에는 초등학생 및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영시 복지관과 협업하여 물놀이를 가기 힘든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워터파크를 개장하고 학부모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통영시 대중교통 방역활동을 진행하면서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봉사의 경계 없이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 통영시 해양환경정화 릴레이캠페인



▲ 통영시에 사랑의 성금을 기탁하고 있는 경남서부지부



▲ 코로나19 대중교통 방역중인 대원들



▲ 지난 1월 7일, 통영 금호마리나 리조트에서 개최된 해양구조인의 밤 행사

대원들 간의 끈끈한 결속력

경남서부지부의 SNS 채널을 보면 각 대원들은 지부활동이 아니더라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보태기도 하며 다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내용을 공유하여 동참을 권유한다. 또한 서로의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 응원한다.

금년 1월에는 '경남서부지부 해양구조인의 밤'이라는 연말 행사를 개최하여 연간 해양구조활동과 정화활동 그리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해온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자리로 그간의 활동상을 사진으로 전시하고 공유하였다. 이 행사만큼은 잠시 활동복을 벗어두고 멋진 정장을 갖춰 입고 가족들과 함께 축제의 밤을 즐긴다.

또한 1년 동안 희생과 노력으로 봉사에 임해준 많은 대원들에게 각 정부기관의 표창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봉사라는 숭고한 목적하에 같은 신념을 가지고 땀 흘린 경남서부지부 대원들이 이러한 격려의 시간들을 통해 그 결속력을 더욱 다지며 다음 행보를 준비한다.



안전을 부탁 海

바람과 파도를 가르치는 드론 해양구조의 선구자

_ 인터뷰: 전북북부지부 신철원 강사

4차산업 핵심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양한 뉴스를 접하고 있다.

많은 영화사에서는 고해상도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을 투입하여 위험하고 아슬한 장면 연출에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보고 있으며 이외에도 농업, 건설, 물류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면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이처럼 4차산업혁명과 더불어 여러 기술과 결합 된 드론의 활용분야는 무궁무진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드론의 특징점만을 살려 해양구조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우리협회 전북북부지부 신철원 강사는 국내에 드론 보급이 확산되기 전부터 해외에서 드론을 직구매하여 해양사고에 적용할 수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최근에는 군산해양경찰서와 함께 최초로 스마트 드론순찰대를 창설하고 해양구조활동에 드론의 활용범위를 실제로 넓혀가고 있다. 드론 해양구조의 선구자로 활동하고 있는 그의 도전 이야기를 들여다보았다.



▲ (오른쪽) 신철원 강사가 세계드론대회를 우리협회 수상 인명구조드론 팀으로 참가하고 있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신철원 강사가 해양과 관련된 구조활동과 교육강사로 활동한 건 지난 2008년부터이다. 어업에 종사하는 부모님 덕분에 민간해양구조대로 활동을 처음 시작하였다. 다년간의 잠수경력 뿐만 아니라 인명구조강사, 수상구조사, 응급처치강사 등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최정예 대원이기도 하다. 지난 2016년부터 전북북부지부에 입회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협회 대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해양안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오던 그가 드론을 활용하여 구조에 접목하고자 생각한 건 지난 2014년 세월호사고 때 였다고 한다.

“그 당시 사고 수습과정을 접하면서 대자연에 대한 민간잠수사들의 무력감을 고스란히 느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된 장비의 활용이라고 생각하였다. 좀 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다면 이상적인 구조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가장 먼저 떠올랐던 장비가 드론이었다”





국산 수중드론의 개발

신철원 강사는 2014년도 수중드론, 수면무인보트, 항공드론으로 접근을 시작하면서 각 분야의 드론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모두 찾아보았다고 한다. 대부분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것으로 조작방법과 작동원리 등을 알고 싶어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개인보유 장비만 수중드론 5대, 항공용 방수드론 10대, 수면무인보트 4대를 보유하고 있다.

“과거 구조용 수중드론은 국내기술로 제작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산학이 협력하여 만든 것으로 주문제작만 가능하였다. 금액이 대부분 1억이 넘는 고가의 제품으로 특수 관계자나 관련 시설에서 겨우 구매할 수 있었다. 접근성이 어렵다 보니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조용 수중드론을 만들고 싶었고 현재 (주)HNY와 함께 4년간 연구에 매진한 결과 일반인들도 접근이 용이한 수중드론을 제작하게 되었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된다”

현재 신철원 강사는 국내에 상용화 되지 않은 국산 항공방수드론 개발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사상 최초 ‘스마트 해양드론순찰대’

지난 6월 4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해양드론순찰대’를 창설하였다. 금번 순찰대는 우리협회 전북북부지부와 전북인력개발원 그리고 군산해양경찰서가 함께 진행한 것으로 드론장비를 보유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군산해경 무인항공기 운용팀과 전북북부지부 신철원 강사가 소속된 드론팀으로 구성되어 군산항과 새만금방조제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스마트 해양드론순찰대에서 사용하는 드론은 영상 촬영뿐 아니라 방송, 구명조끼 투하, 해양오염사고 추적 감시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순찰대 창설에 맞춰 추가로 선보인 드론은 수중을 수색할 수 있는 ‘소나’를 탑재하고 잠수 기능도 있어 실종자 수색에 활용가치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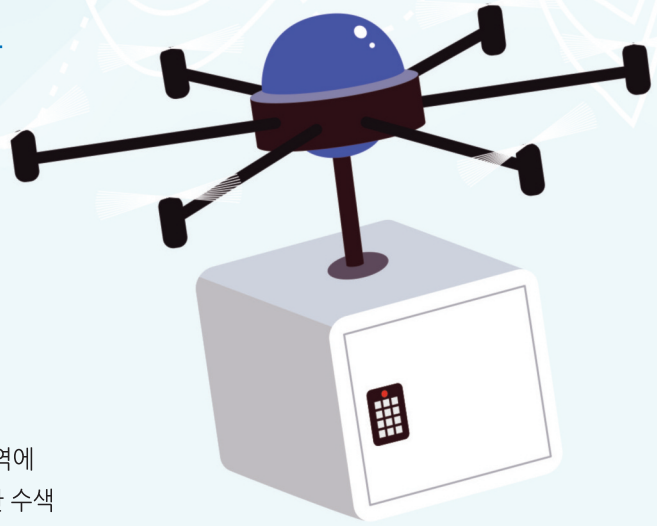
“최근 충남 태안 인근 해상에서 중국의 밀입국용으로 추정되는 보트가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해상경계 강화 지시와 더불어 군산해경은 비상근무에 돌입하였다. 스마트 드론순찰대는 이처럼 사람이 직접 확인하기 힘든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3명이 1팀(주조종자, 부조종자, 안전감시자)으로 구성되어 주말마다 3, 4팀이 순찰에 나설 예정이다”



▲ 스마트 해양드론순찰대 민·관·군 합동 관 내 중국 밀입국보트 및 밀입국자 경계강화 해안선 드론수색순찰 중



▲ 스마트 해양드론순찰대 발대식



수색구조 활동에 본격적으로 투입

지난해 11월 24일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인근 해상에서 작업 중이던 양식장 관리선(0.5t)이 연락 두절되었다. 관리선에 승선하고 있던 선장 1명과 선원 4명 중 3명의 선원은 해경에 의해 현장에서 구조되었지만 선장과 선원 1명은 실종되었다.

해경은 경비함정 4척과 헬기 2대, 어선 1척 등을 실종 예상해역에 투입하여 수색작업을 벌였다. 사고 발생 당시 신철원 강사 또한 수색구조활동에 투입되었다. 그 당시는 스마트 드론순찰대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였고 5일 가량 수색작업에 동참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실종자 수색에도 신철원 강사는 민간잠수사로 참여하였다. 이 사고 현장에서도 드론을 활용하여 수색작업에 힘을 보태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군산지역 코로나19 방역활동에도 신철원 강사를 비롯한 전북북부지부 대원 및 지역 기관과 함께 드론을 활용하여 방역작업에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육지와 해양을 가리지 않고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6월 10일, 고군산대교서 추락한 50대 실종자 수색작업 중인 신철원 강사



▲ 코로나19 드론방역을 실시한 전북북부지부 대원들과 신철원 강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드론구조 매뉴얼

“현재 구조작업이나 훈련 때 드론을 활용해보면서 사고예방과 골든타임을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매뉴얼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수치화된 자료와 함께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기관/단체들과 협업할 수 있다면 더욱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고 확신한다.”

현재 전북북부지부는 군산해양경찰서와 연간 100회가 넘는 훈련을 함께 한다. 대부분의 해양경찰 훈련에 지부가 동참하면서 수색구조를 위한 잠수훈련과 드론 작동법을 함께 숙지하고 훈련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다. 실제 사고 현장뿐만 아니라

안전을 부탁 海



▲ 군산해경서와 드론으로 인명구조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 시민해양봉사대와 군산해양경찰서를 대상으로 드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신철원 강사

훈련에도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매뉴얼화 되고 점점 체계가 잡힌다면 협회의 모든 지부에서도 드론구조대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

구조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자의 안전이 담보되고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시각각 날씨의 영향을 받는 바다에서의 구조작업은 말처럼 구조자의 안전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 많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대신할 수 있는 ‘드론의 활용’을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며 실제 구조현장에 적용한 신철원 강사는 어느덧 스마트 드론순찰대 창설에 일조하며 드론 해양구조 선구자로 나서고 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을 현실로 펼쳐 보인 열혈청년 신철원 강사의 다음 행보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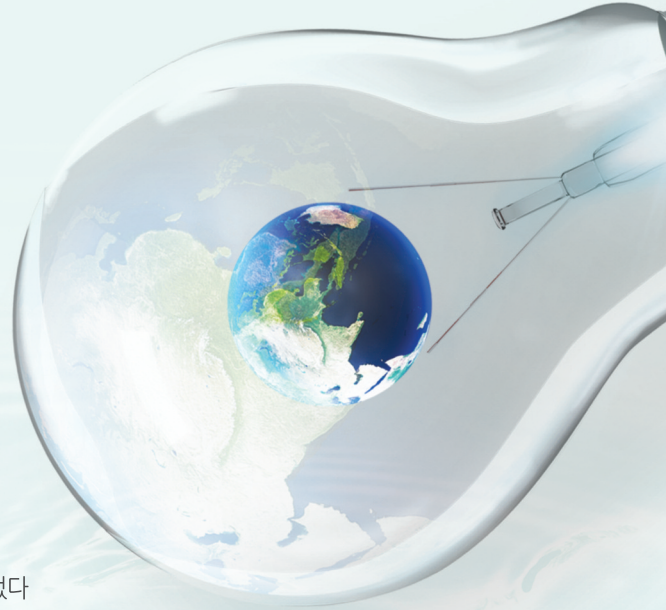


환경을 부탁 海

다시 기지개를 켜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나선 전국 지부

코로나19는 전반적으로 우리 삶의 생활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지난 2월 안전과 위생을 위해 환경부는 식품접객업에 한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 닐슨코리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전후를 기준으로 배달음식 이용률이 33%에서 52%로 증가했다고 한다. 늘어난 일회용품 사용량은 쓰레기 문제로 바로 이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월, 하루 평균 수거된 쓰레기의 양이 1,209t으로 전년대비 15%가량 늘었다고 한다. 갈 곳 잃은 쓰레기들이 최종적으로 흘러가는 곳은 결국 바다이다. 위생과 안전은 개인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팬데믹의 시대에 일회용품을 줄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도 지속시킬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더이상 바다속으로 흘러들어간 쓰레기들을 두고만 볼 수 없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에서 전국 지부는 다시 바다에 모여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을 시작하였다. 멈추어있던 시간만큼이나 더욱 분주해진 전국 지부 소식을 들여다보았다.



부산지부, 송도해수욕장 및 영도봉래 항 수중 정화활동



지난 6월 27일, 부산지부는 영도 봉래나루항, 송도해수욕장에서 대대적인 수중 및 수변 정화활동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지부 104명의 대원들과 대형기선저인망수협 20명, 부산해양경찰서 10명 등 총 134명의 대원이 동원되었다. 봉래나루 항 바닷속 폐기물 수거뿐만 아니라 송도해수욕장 다이빙대 따개비 및 위험물질 등을

제거하고 하고 수중시설물 안전점검에도 나섰다. 또한 어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과 더불어 심폐소생술 교육도 함께 진행하였다. 지난 6월 16일에는 영도 봉래동 물량장에서 선박 기름 유출 오염사고가 발생하여 부산지부 해양특수구조대 및 여성봉사대 20명이 오염방제작업을 진행하면서 쓰레기 수거작업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활동범위를 넓힘으로써 부산 바다지킴이에 나서고 있다.

장흥구조대, 삭금항에서 덕촌항으로 이어지는 바닷길에서 수중 정화활동

매일 팀을 이루어 항구로 순찰을 나서고 있는 장흥구조대는 하루가 멀다하고 크고작은 사고에 투입되어 지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는 장흥지역의 바다안전에 없어서는 안 될 명실상부 장흥지역 최고의 봉사단체로 입지를 굳혔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중 정화활동에 대한 활동범위도 함께 넓히겠다고 선포하면서 지난 6월 2일, 삭금항에서 덕촌항쪽으로 이어지는 바다에서 본격적으로 수중 정화활동을 진행하였다. 대부분 다년간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 잠수요원으로 바다 한가운데서 침수되어 있던 쓰레기 위주로 정화작업을 진행하였다.



■ 경남서부지부, 금년에도 통영시 해양환경 릴레이캠페인 재개!

2018년도부터 매월 한 회도 빠지지 않고 통영시 해양환경 릴레이캠페인을 진행하였던 경남서부지부는 코로나19 전파력에 잠시 주춤하였던 환경 정화활동을 지난 5월 17일 다시 재개하였다. 제32호로 진행되었던 해양 환경릴레이 캠페인은 죽림해변에서 불가사리 퇴치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제25회 바다의 날을 맞아 지난 5월 31일은 통영해양경찰서와 함께 해양환경정화작업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미뤄졌던 개해제도 함께 진행하면서 금년 활동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렸다. 또한 봉사에 앞장서며 모범을 보여줬던 대원들에게 해경청과 지자체에서 표창장을 수여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하였다.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표창 : 장명옥
- 국회의원 표창 : 김태균, 신정수, 박정훈
- 통영시장 표창 : 김대수, 이충일, 송창길
- 통영해양경찰서장 표창 : 배미선, 김도현, 장강준

■ 경남동부지부, 특수구조대 · 마산구조대 개해제 및 해양환경 정화활동 실시

지난 6월 6일, 경남동부특수구조대는 조금 늦은 2020년 개해제를 개최하였다. 1년 동안 안전하게 바다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원한 후 행암동 물양장 일대에서 1차 해양 정화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지난해 해양봉사활동을 위해 자비로 보트를 구입한 경남동부특수구조대는 금년에도 어김없이 해양 봉사활동에 대한 각오가 남달랐다. 앞서 지난 5월 24일에는 마산구조대가 경남대 연수원이 있는 마산합포구 구산면 옥계리에서 수중정화 및 해안가 청소를 실시하면서 경남동부지부의 해양 봉사활동에 신호탄이 되었다.



앞서 지난 5월 24일에는 마산구조대가 경남대 연수원이 있는 마산합포구 구산면 옥계리에서 수중정화 및 해안가 청소를 실시하면서 경남동부지부의 해양 봉사활동에 신호탄이 되었다.

경북지부 영일만항 수중 정화활동



지난 6월 23일, 경북지부는 2020년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맞아 포항해양경찰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영일만항 수중 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정화활동에는 경북지부 30명의 대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총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대적인 수중정화활동을 펼쳤다.

충청남부지부, 춘장대 수중·수변 정화활동

지난 6월 홍원구난대·봉사대 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하였던 충청남부지부는 활동의 시작을 알리듯 지난 6월 16일 춘장대 수중·수변 정화활동을 개최하였다. 특히나 서천군 지방보조금사업과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업에서도 홍원지역대가 선정되면서 금년 여름은 지역의 해양안전을 위해 더욱 분주해질 예정이다.



전남서부지부, '환경의 날' 맞이하여 바다수중 정화활동



지난 6월 13일, 전남서부지부는 평화광장 해양레포츠체험장 인근해서 바다수중 정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환경의 날'을 맞아 대대적인 행사를 벌인 전남서부지부는 이날 행사에 장재구 협회장도 수중 정화활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대원들에게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냈다.

전북북부지부, '제25회 바다의 날' 맞아 해양환경 정화활동

전북북부지부는 지난 5월 31일, 군산 신시도 몽돌 해수욕장에서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겸 협회장을 비롯하여 전북북부지부 대원 및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직원 등 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쓰레기 수거 작업을 실시하였다. 전북북부지부는 해마다 수차례 비응도와 선유도 일원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작업과 매월 한차례 해변 정화활동을 진행하며 전북지역의 깨끗한 바다 만들기 앞장서고 있다.



환경을 부탁 海



서귀포구조대, 청정한 제주 바다를 위해



우리나라 최대의 섬이자 청정한 해역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의 남쪽 끝 제주도에서도 바다사랑을 알리는 봉사자들의 해양 정화활동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5월 27일 서귀포 하효항 일대에서 우리협회 서귀포구조대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도수중핀수영협회와 함께 총 120여명이 넘는 대인원이 모인 가운데 해양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잠수인력만 총 60명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서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양만 8톤 가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남부지부 정읍구조대 개해제 및 환경 정화활동



지난 5월 17일, 정읍구조대는 부안 가력항 일원에서 2020년 개해제를 개최하고 수중 정화활동에 나섰다. 20여 명의 잠수대원들이 개해제를 통해 금년에도 안전하게 바다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원한 후 바닷속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며 주춧돌이었던 활동에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였다.



국내 뉴스

해수욕장 붐빌 땀 빨간불! 미리 확인하세요

해수욕장 이용객 혼잡도 신호등, 사전 예약제 시범 운영 등 도입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수욕장에서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해수욕장 운영대응 지침』시행(5.27.~)에 이어, 이용객 분산을 위한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대형 해수욕장으로 이용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과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하고, 전국의 한적한 해수욕장 25선(참고 3)을 선정하여 국민들에게 이용을 권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이용객이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미리 확인하여 이용객이 많은 해수욕장의 방문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적정 인원 대비 혼잡도에 따라 100% 이하는 초록색, 100% 초과~200% 이하는 노란색, 200% 초과는 빨간색을 나타내게 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KT와 협력하여 KT가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기술을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이 정보를 통해 해수욕장 이용객 수를 30분 간격으로 집계하여 신호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 백사장 내 최소 2m 거리 유지를 위해 1인당 소요 면적(약 3.2m²)을 기준으로 산정(적정인원 = 백사장 면적m²÷3.2m²)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바다여행(www.seantou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향후 주요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7월 1일부터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한 10개 대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우선 개시되고, 7월 중순까지 주요 50개 해수욕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 (7.1) 부산 해운대, 광안리, 송도, 송정, 대대포, 흥남 대천, 강릉 경포대, 양양 낙산, 속초, 삼척 → (7.15) 주요 50개 해수욕장으로 확대

둘째, 전라남도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범 적용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방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도 지켜질 수 있는 새로운 해수욕장 이용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7월 1일부터 사전 예약제가 적용되는 전라남도의 해수욕장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이나 각 시·군 누리집의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해야 한다.

또한, 해운대·경포 등 연간 이용객이 30만 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적용된 구획면과 파라솔을 현장에서 배정하도록 한다. 파라솔 등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기록하도록 하여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접촉자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는 해수욕장 특성상 대규모 이용객, 빈번한 이동 등으로 통제가 어려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에서 이용객 밀집도를 높일 수 있는 개장식, 야간 축제 개최 등을 금지하고 야간 개장 등을 자제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운영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온라인 이용권 구매, 보령 대천 해수욕장의 전원 발열체크 등과 같이 지역별로 자체 방역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오윤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보완대책은 이용객에게 미리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 해수욕장 이용객을 분산하고, 새로운 해수욕장 이용 모델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혼잡한 해수욕장 이용은 가급적 피하고, 해수욕장에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꼭 지켜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양수산부]

올 여름철, 바다에서의 안전과 방역에 총력 다한다

여름철 해양활동 증가 및 기상악화 대비, 사고 취약요인 집중관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여름철 해양활동 증가, 기상 악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고,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

여름철은 휴가철을 맞아 여객선, 낚시어선 이용 등 국민의 해양활동이 증가하고, 태풍·폭우 등의 영향으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 해양사고 발생('15~'19)

: 가을(31%) > 여름(27%) > 봄(23%) > 겨울(20%)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을 통해 ▲여객선(158척 전체) 등 다중이용선박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점검 및 안전 지도, ▲기상악화 대비 선박·시설물 안전관리 및 24시간 구조대응 태세 유지, ▲해양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의식 제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13인 이상 낚시어선의 야간 항해 시 안전요원 승선, 안전성 검사강화 등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해양안전 조치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살필 계획이다. 한편, 8월 19일부터는 연안여객선에서 고객이 안전관리종사자(선원,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등)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이 강화*되며,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은 사업자에게 승선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업자는 출항·입항 시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하는 규정이 새롭게 시행된다.

※ (현행) 과태료 100만원 이하 → (강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또한, 8월 28일부터는 풍랑·태풍특보 시 위치보고와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므로, 해당 규정의 이행여부도 철저히 점검하여 기상악화에 대비

한다. 항만·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미리 안전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5월 구축이 완료된 '도면 공유 시스템'을 운영하여 여객선에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여객선사에서 선박검사기관을 통해 선박 도면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에서 이를 확인하여 도면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구조에 더욱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름철 레저활동 증가에 대비해 항법위반, 음주운항* 등도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여 해양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여객선에 탑승한 여객을 대상으로 운항 중 소화·구명설비 작동법 등을 간략하게 교육하여 대국민 해양안전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 음주운항 처벌강화 관련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20.5.19. 시행)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2020. 5. 5. 시행) 개정

이와 함께, 여름철 해양활동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선내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 실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여름철에는 무더위 등으로 종사자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교통량이 많아져 운항 중 주위경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 "해양레저 활동을 하는 국민들도 구명조끼 착용, 음주운항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양수산부]

국내 뉴스

올해 첫 보름달물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령

보름달물해파리는 전남, 경남,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전남, 경남, 제주 해역에 발령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완현)은 6월 16일(화) 전남 득량만, 경상남도 남해군 서측~거제시 동측 해역에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전남, 경남, 제주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각각 발령하였다.

※ 주의단계 발령기준 : 보름달물해파리 5개체/100㎡, 노무라입깃해파리 1개체/100㎡

같은 해에 보름달물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가 모두 발령된 것은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6월 조사 결과 일부 해역에 국지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해파리는 독성은 약하지만, 조업 시 어구 손실 등을 일으킨다. 특히 여름철 일조량 증가, 기온 상승으로 연안 해역의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해파리의 성장도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남해안 우심해역*에서는 해파리의 대량 발생이 예상된다.

※ 우심해역 : 경남 고성만, 자란만, 마산만, 행암만, 전남 득량만

※ (6월 조사 결과) 경남해역 : 4~100개체/100㎡,
전남해역 : 20~60개체/100㎡ 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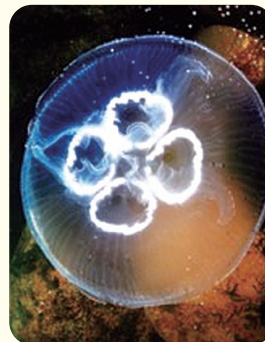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하여 해류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파리로, 지난 5월부터 동중국해에서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제주~남해안 해역에 대량의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출현*하였으며, 이번 주 이후에도 지속적인 남풍계열 바람과 강한 대마난류 영향으로 전남 및 경남 연안까지 유입·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6월 조사 결과) 남해서부 연안 : 0.8~2.43개체/100㎡,
제주~고흥해역 : 0~0.9개체/100㎡ 출현

해양수산부는 주의단계 특보 발령과 동시에 수산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해파리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특보를 발령한 해역에 해파리 절단망을 부착한 지역 어선을 투입하여 해파리를 제거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욕장 해파리 쓰임사고 예방을 위해 차단망을 설치(지자체)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올해 수립한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및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어업인과 해수욕객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해파리를 목격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051-720-2260, 2223), 관할 지자체 및 해경, 소방청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양수산부]



▲ 보름달물해파리



▲ 노무라입깃해파리

해양경찰청, 고래류 보호를 위한 현장 업무 개선 방안 마련

고래류 생태 고려한 단속... 혼획 고래류 처리 강화 지침 마련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고래류 보호 및 불법 포획 근절을 위한 현장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6월 15일 밝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89종의 고래가 서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참고래, 상괭이 등 보호대상 고래류를 포함한 총 35종의 고래가 서식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보호대상 고래류*의 경우에는 유통도 불가능하다.

보호대상 고래류 : 참고래, 귀신고래, 남방큰돌고래, 대왕고래, 보리고래, 북방긴수염고래, 브라이드고래, 상괭이, 향고래, 흑등고래

그러나, 최근 5년간 우리 해역에서 불법 포획된 고래는 총 54마리며, 현재까지도 위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고래류 보호를 위한 현장 업무를 개선한다. 우선, 기존 전국 일제 단속에서 벗어나 고래 서식 기간 등 생태를 고려한 지역별 단속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 계획에 따라 상황실과 경비함정, 파출소, 항공기 등 현장세력 간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벌인다.

또한, 현장 경찰관의 신속하고 적법한 처리를 위해 혼획* 고래류에 대한 별도 처리 지침을 마련해 업무를 지원한다.

* 고래류 혼획 : 고래류가 어로 활동 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

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 개선을 통해 불법 포획 단속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래류와 관련된 위법 행위 적발 시 강력히 처벌해 고래류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래류 불법 포획의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포획한 고래류를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경우 수산자원관리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처 : 해양경찰청]

국내 뉴스

선박검사 종이증서, 이젠 안녕~!

해수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개정, 선박검사원 학력제한도 철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그간 종이로만 발급되던 선박검사증서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력에 관계없이 일정 자격증과 경력만으로도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7일(수) 공포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법정 증서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전자증서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선박검사증서, 임시항해검사증서 등 선박검사 관련 증서를 전자 증서로 발급하게 된다. 그간 선박검사증서 등은 종이증서로 선박 내에 비치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종이 낭비가 사라지고 종이증서 발급이나 관리에 들었던 선원의 행정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는 적어도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경우에만 될 수 있었던 선박검사원의 학력 제한을 과감하게 철폐하여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갖춘 경우 누구나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한편, 가축·수산물 및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의 화물관리인을 임시승선자로 인정하여 화물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특별관리가 필요한 화물의 관리인은 화물선에 승선할 수 없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런 불편이나 경제적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13종의 선박검사 등을 단일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소유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부를 대행하여 형식승인시험 등을 수행하는 정부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부가지도·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컨테이너 형식승인시험기관, 컨테이너 검정대행기관 및 위험물검사 대행기관

선박검사원의 학력철폐 규정은 2020년 6월 1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전자증서제도 도입, 가축·수산물·위험물 등 차량 화물관리인 임시승선자 인정, 13종 선박검사 서식 단일화 등은 6개월 후인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김민중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의 규제개선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선박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한 결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해운업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적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한편, 규제개선도 충실히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양수산부]



협회교육안내

2020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교육생 모집 안내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는 「수상구조기술향상과정」의 일환으로

2020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실기시험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구조사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개요

- 과 정 명 :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 주 관 : 한국해양구조협회
- 교육대상 : 수영 100m 이상 가능한자, 해경특공대(경찰공무원 희망자), 생존수영강사 활동희망자, 실내수영장, 워터파크, 해수욕장, 각종 물놀이 시설 등에 안전요원으로 취업희망자
- 교육 및 접수기간 : 연중 주말반 운영 (홈페이지 및 전화 문의)
- 교육인원 : 과정별 각 40명 (홈페이지 접수, 선착순 마감)
- 교육장소 : 부산사직실내수영장 내 강의실 및 수영장
- 교 육 비 : 금500,000원 (수협 1010-1020-6229 한국해양구조협회) ※수영장입장료 포함
- 최초접결지 : 부산사직실내수영장 내 117호 강의실
- 준 비 물 : 수영복, 수모, 수경, 세면도구, 필기도구, 증명사진(1장), 신분증

■ 주요사항

-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며, 본 교육기관에서는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64시간만 진행됩니다. 시험일정 및 장소는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교육수료 후 개인이 직접 해양경찰청에 신청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사정으로 인해 수상구조사 교육(64시간) 미 이수 시 추가 보충교육을 받아야 수료증이 발급되며, 보충교육 일정은 교육상황에 따라 추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 교육시작일 부터는 환불이 불가하오니, 수강취소를 원하시면 교육 전 환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문 의 : T. 051-714-3122, F. 051-714-3095, E. kmrc119@hanmail.net
- 한국해양구조협회 홈페이지 www.marsa.or.kr
-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 <http://imsm.kcg.go.kr>

협회교육안내

2020년 『인명구조요원』 교육

해양사고 발생으로 인한 구조대원의 절대적 안전은 물론 요구조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에서의 전문화된 교육을 통한 인명구조요원 육성

| 2020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20년 1월 ~ 12월 (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관할 지역 실내수영장
- 대 상 : 요원 - 만 16세 이상 누구나
강사 - 요원 자격이 있는 자
- 교육과정 : 인명구조요원 교육(40시간), 인명구조강사(60시간)
- 준 비 물 : 수영복, 수모, 수경, 오리발, 세면도구, 필기도구,
활동복, 활동화, 사진2매
- 교 육 비 : 요원 22만원 / 강사 30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시험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
- 교육과목
 -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법(16시간) / 기본인명구조술 등
 - 인명구조법 (24시간) / 구조영법, 종합구조술, 장비구조술 등
 - 인명구조 교수법 (20시간) / 기본인명구조술, 장비구조술 등

• 자격명
인명구조요원, 인명구조강사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인명구조요원(2014-1485)
인명구조강사(2014-5724)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민홍기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인명구조요원 / 인명구조강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협회교육안내

2020년 『재난안전지도사』교육

각종 재난·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문화 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및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있는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함

| 2020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20년 1월 ~ 12월 (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교육장
- 대 상 : 1급 - 재난 2급 이수자로 고졸 이상의 만 18세 이상
2급 - 재난 3급 이수자
3급 - 제한없음
- 준 비 물 : 필기도구, 활동복, 활동화, 사진2매
- 교 육 비 : 1급 30만원 / 2급 10만원 / 3급 5만원
- 교 육 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시험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
- 교육과목
 - 재난안전의 의미(8시간)
 - 위급시 행동요령 및 구조구급 (8시간)
 - 재난안전 교수법 (50시간)

· **자격명**
재난안전지도사(1급/2급/3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2015-003725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민홍기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재난안전지도사(1급/2급/3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020년 『해양안전지도사』 교육

각종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문화 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문성 있는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함

| 2020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20년 1월~ 12월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교육장
- 대 상 : 1급 - 해양 2급 이수자로 고졸 이상의 만 18세 이상
2급 - 제한없음
- 준 비 물 : 필기도구, 활동복, 활성화, 사진2매, 수영복, 수모, 수경
- 교 육 비 : 1급 30만원, 2급 10만원
- 교 육 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시험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
- 교육과목
 - 해양안전 · 생존 등 해양사고예방의 의미(8시간)
 - 선박화재, 충돌, 침수 등 위급 시 행동요령(8시간)
 - 해양안전 · 생존 등 교수법(50시간)

· **자격명**
해양안전지도사(1급/2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2015-002815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민홍기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해양안전지도사(1급/2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협회후원안내

1) 월 정기후원 안내

- 아래의 계좌번호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은행 : 수협 | 입금계좌번호 : 1010-1020-6195 | 예금주 : 한국해양구조협회

2) 특정목적사업 후원

- 구조장비 보급사업, 청소년안전교육, 바다쓰레기 정화활동 등 특정 프로그램에 협찬,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사홍보물에 후원자의 이름, 로고 등을 넣어드립니다.

3) 후원회원이 되시면

- 후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홍보물을 보내드립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행사에 우선 초대해드리며, 참가비가 있을 때는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 해양안전지킴이로서 보람과 긍지를 돌려드립니다.

4) 문의

| 전화 : 051-714-3695 | 팩스 : 051-714-3095 | E-MAIL : kmrc119@hanmail.net |





2020년 한국해양구조협회 수상구조사 양성교육

수강생 모집 안내



수상구조사란?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을 부여받은 자

수상구조사가 되려면?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단체(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64시간) 후 해양경찰청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함



평가과목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기본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역할 및 혜택 ★★★★★

수상구조사는 해경특공대(경찰 공무원 희망자), 생존수영강사 활동희망자, 실내수영장, 워터파크, 해수욕장, 각종 물놀이 시설 등에 안전요원으로 취업희망자들에게 가산점 등의 혜택이 있음.



교육과정 안내

교육기간	연중 주말반 운영
접수방법	전화접수 (T.051-714-3122), 홈페이지 접수확인 후 교육비 납부
교육인원	과정별 각 40명(전화 및 홈페이지 접수, 선착순 마감)
교육장소	부산사직실내수영장(부산)
교육비	금500,000원 (교재비, 시설이용료 경비 포함, 숙식비 본인부담)
문의처	한국해양구조협회 T. 051-714-3122 한국해양구조협회 홈페이지 www.marsa.or.kr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https://imsn.kcg.go.kr



해양경찰청지정 교육기관
한국해양구조협회



오프라인 전국 판매 1위!
다양한 산업안전제품과 충분한 재고 확보!

호흡보호구

3M 방진마스크



8710L 9913K 8955K 9332K+

방진2급

방진1급

방진특급

3M 방독마스크



7502면체+6001정화통 (유기용제 조합)
6800면체+6006정화통 (복합가스 조합)

3M 송기식 마스크



SIGMA-2

전신보호복

Level D - Type 5,6

3M MG2000

Type 5 & 6 (EN340)



EN1149 EN14126 EN1073



Level C - Type 3,4

3M 4570

Type 3,4,5&6 (EN340)



EN1149-5 EN14126 EN1073

3M MC3000

Type 3, 4 & 5 (EN340)



EN1149 EN14126 EN1073



보안경



3M AP-300 Series

3M SF-300 Series

3M OX 1000 / OX 2000

3M 332AF / 334AF

장갑

다목적 작업 장갑

다목적/경작업용
3M 슈퍼그립 200



배임보호/중등작업용
Ansell 11-528



배임보호/중등작업용
3M 543, 553



일회용 장갑

니트릴 100PCS



라텍스 100PCS



Ansell 내화학 장갑

Solvex® 37-176
니트릴



AlphaTec® 87-224
니트릴 / 네오프렌



AlphaTec® 08-354
네오프렌



연마/절단 제품

14인치 프리미엄
푸른돌 절단석

- 스텐레스 스틸용
- 알루미늄
- 지르코니아



큐비트론II 플렉시블
그라인딩 휠

- 연마/스텐레스용
- PSG 미네랄
- 방수 +36, +60, +80 (4인치)



베벨 디스크



전동그라인더 (4CG-2)

- 절단 및 연마 작업
- 720W / 방호가드 / 4인치 전용



접착 스프레이 제품



그래픽 아트 #77
천, 종이, 필름 등 접착
용량 : 455ml



고강도 접착제 #99
고내열성 강한 초접착
용량 : 455ml



윤활방지제
코팅, 녹방지
용량 : 230g

주방·청소용품



MULTI
공식대리점

NAVER

GO스토어

검색

(주)삼호에스엔씨

TEL. (051) 809-1333 | FAX. (051) 809-8460

부산시 강서구 공항로 265번길 13-15